

자기 마음속에 들어 있는 심원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대승의 바른 믿음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수행의 길을 걷다보면 본질을 투시하고 실상을 관조하는 안목을 얻는다. 그렇게 발현된 지혜의 안목은 영원히 자기를 살린다. 그래서 수행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일대사의 일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일대사의 자리에는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

(선원장 총담 이항우, www.saemalgui.org)이다. 새말귀선원에는 '선 생애를 통하여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거사불교의 횃불을 차켜들었던 백봉 거사의 뜻을 이은 총담(壽堂)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강경>과 <유미경> 강의,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수 <선문염송> 법문을 듣고 있다.

# 모습없는 '나' 찾는 일에 생명 건다

##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⑫ -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새벽 5시까지 철야참선 정진을 하고 있는 부산 새말귀선원의 학인들.

8월 27일 철야정진을 앞둔 새말귀선원을 찾아 총담 거사에게 '새말귀'의 뜻부터 물었다.

"스승님이 재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신화두(新話頭)의 우리말입니다. 재가자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속하지 않는 허공과도 같은 것이 내 육신을 끌고 다닌다는 법문을 이해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 그 늙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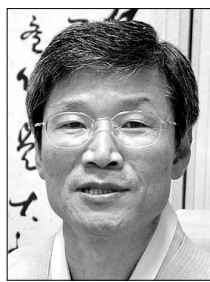
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곧 화두를 놓치지 않는 효과를 거두는 공부법입니다."

### #대승법문 들을 수 있는 귀부터 열고...

새말귀와 화두 정진으로 화두 참구의 관성을 높여가는 새말귀선원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히 대승의 믿음에 근거한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추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 될 만큼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문과 참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설하는 것도 대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또한 일년에 두 차례 4박 5일 동안 잡자지 않고 수행하는 융맹정진은 새말귀선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 수행의 한 고비를 넘어서는 관문이 되고 있다.

"불불이불상견(佛佛而不相見) 새말귀선원에 인연이 된 초심자들에게 총담 거사가 던지는 화두다. '부처가 부처를 서로 알아보지 못 한다'는 이 화두 하나만 깨쳐도 대오를 하게 되지만 우선은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대승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대승은 모습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부요, 모습을 목표로 하면 모두 소승입니다. 빛깔이나 소리로 여래를 볼 수 없



이항우 거사.

다고 <금강경>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어떤 경우라도 대승이어야 합니다. 모습에 속아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대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른 수행이며 나중에는 모습에 속는 일이 차차로 없어지게 됩니다."

새말귀선원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총담 거사의 지도는 절대적이다. 백봉 거사의 제자로서 유일하게 선원을 열고 그 뜻을 이어오고 있는데 학인의 공부는 오로지 가르치는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제자들을 향한 총담 거사의 지도는 철저하고 지극하기 때문이다. 23년 전부터 학인을 도와주고 있는 총담 거사는 법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몸을 보살필 생각조차 내지 않는 스승으로 통한다. 철저히 일대일로 진행되는 총담 거사와의 참문을 통해 초심자들은 화두를 참구하는 맛을 알아 가고 구경자들은 수행 중에 빠지기 쉬운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간다.

### #총담 거사와 일대일 참문

도우회 회장 김경철(45·원명)씨는 "처음 선생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뭔가 머리통이 맑아진 듯이 평했다. 잘못된 선입견을 깨고 선생님의 법문을 자꾸 듣다 보니 수행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스승의 바른 지도를 받고 있는 새말귀선원에는 세 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는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스승을 믿을 것', 둘째는 '다 놓을 것', 셋째는 '목숨 걸고 놓고 수행할 것'이다. 그 속에서 이 공부만 잡자지 대오를 하게 되지만 우선은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이끌어주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

밤 11시 <선문염송> 법문이 시작됐다. 인터넷(www.ohmylove.co.kr)에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총담 거사의 법문은 <선문염송>에 녹아 있는 선사의 살림살

### 새말귀선원 세가지 철칙

- ① 부처님과 부처님법과 스승을 믿을 것
- ② 다 놓을 것
- ③ 목숨 걸고 놓고 수행할 것

이를 법당 가득 출렁이게 한다.

"불법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변해왔고 이렇게 생긴 모습이 다르다고 인정하지만 육신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천기누설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천기누설을 해주셨는데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은 모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을 구해서 안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서야 대승법문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고속도로에 올라갈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 #금요일 경전 강의, 토요일 철야정진

수행의 고속도로에 올라선 사람 중엔 멀리 강원도 태백에서 철야 정진에 참가한 김현희(정혜) 씨도 있다. 서울에 배우다 총담 거사가 들려주는 '좋은 말씀'에 끌려 시작했던 공부가 익고 깊어져 수행이 전부가 된 사람도 여럿이다. 교사, 간호사, 한의사 등 전문직이 많으며 가족이 함께 수행의 깊은 맛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철야 정진이 시작된 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수행 열기가 뜨겁다.

이처럼 새말귀선원 학인들은 수행에 목숨을 건다. 흐리멍덩하게 앉아 내가 수행한다는 상을 지었다가는 어김없이 총담 거사의 방망이를 맞는다.

새벽 5시, 철야정진을 끝맺는 축비소리에 몸을 일으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캄캄한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며 하얗게 밤을 새운 도반들의 마음에 밝아있는 아침이 차오르고 있었다. 어두워진 적조차 없었던 그 밝음 그대로. (051)759-1097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 <33> 용과 뱀이 함께 사는 곳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다. 그러나 항상 서로 책지고 살지 말라는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 못지않게 미워하는 사람을 매일 봐야하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는 한번 맞닥뜨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중조식의 테두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매일 봐야 하는 미운 사람들은 언제나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니 항상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격이라 하겠다.

선가 역시 '부모 말도 안 듣고 집을 나온' 개성이 강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흔히 '용사촌집(龍蛇混雜)'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척문회(820~899) 선사가 오대산 금강굴에서 만난 문수보살에게 "그곳 대중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으니 "법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함께 있어 있소."라고 한 것에서 기인한다.

희상을 파(破)해버리는 수밖에 없다.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 선사는 데리고 살 수 없는 대중을 목소리 들우지 않고도 자기 발로 걸어 나가게 만든 고승이다. 하루는 대중을 모아놓고 "간밤에 돌아간 부모님이 나타나서 술과 고기 그리고 지전(紙錢)을 찾았다. 그러니 속가법식대로 제사를 모셔야겠다"고 했다. 곳곳을 열고서 제물을 마련해 위패를 모시고 술잔과 고기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종이돈을 불살랐다. 절집에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모셨으니 대중이 많이 많은 수밖에 없다.

어떤 제사를 주관하니 참작해야 했겠지만 이맛살을 있는대로 지푸러웠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제사를 마친 후 사편의 대표격인 도감과 이판의 대표격인 입승을 제사상 앞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는 소반에 남아있는 술, 고기와 함께 음식을 주었다. 하나같이 수행자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

## 어리석은 대중 산중에서 쫓아낼 요량으로 제사 지내고 술·고기 먹으니 무더기 출행량

다시 무척 선사가 물기를 "수행하는 얼마나 사느냐?"고 하니 문수보살은 그 유명한 공안 "전삼삼(前三三) 후삼삼(後三三)"이라고 답변한다. 그 뒤부터 '전삼삼 후삼삼'은 <벽인록> 35칙으로 정리되어 오늘날까지 선사지(修善地)들에게 커다란 의심덩어리를 던져주고 있다.

행동거지가 머뭇머뭇한 괴상들과 함께 사는 것을, '역경계 선지식'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못살고 결망을 씨기 마련이다. '무거운 짐 떠나라고 하느니 가벼운 짐 떠나라'는 말이 딱 맞다. 짐작 가아할 놈은 계속 살고, 살아야 할 사람은 가벼리는 일 이 비밀비해한 것이 사바세계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칼잡은 선사들은 전체 대중을 위하여 말형구리는 몽둥이를 휘둘러 가져없이 쫓아내 버리든지, 개과천선(改過遷善)케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반대로 한 두 명을 빼고 나머지 대중 전체가 보기 싫을 때는 그

고 손사래를 쳤다. 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혼자 가운데 자리에 앉아 태연히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셨다. 대중은 술과 고기를 큰 방에서 먹는 '맹초'를 어떻게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느냐면서 모두 결망을 지고 떠나 버렸다.

그때도 스님을 밟고 따르는 석상자명(石霜慈明) 986~1040과 대우(大愚), 곡천(谷川) 스님 등 몇 명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이날 선사는 법상에 올라 이렇게 본심을 털어놓았다. "수많은 잡귀진 때를 한 상의 술, 고기와 두 통치의 종이돈으로 모조리 쫓아버렸다. 남은 대중 속에는, 가지와 잎은 없고 오로지 진자 열매만 남아 있구나."

분양선소 선사의 진정한 뜻은 죽은 귀신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산 귀신을 쫓아 버리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한 스승의 본래 의도를 모르고 작전에 제대로 걸려든 어리석은 산승장 같은 대중을 보내버리기 위하여 제사상의 술과 고기가 또다른 활과 방이 되었던 것이다.

원형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개 천 지 조 화 벽

##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양 완성

- 원후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치셨는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력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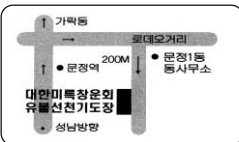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상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龍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闕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칩니다.

##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능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조율 함으로서 명상대전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법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문 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인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